

예산안 날치기 후폭풍.. 세밀 정국 급랭

박지원 “이명박정권 무능 국민이 심판” 장외투쟁

안상수 “정치 선진화위해 개헌 재점화.. 논의 필요”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및 주요 안건에 대한 단독 강행처리 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 반면 여권에서는 개헌론을 뛰어넘어 정국 전환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9일 고위정책회의·최고 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끝나고 국회에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주영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법적 요소를 모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국민이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한데 이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당분간 장외에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국회 밖으로 나가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장외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여권을 규탄하는 한편 의원직 종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의사를 제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주영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법적 요소를 모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투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생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국회 밖으로 나가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장외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여권을 규탄하는 한편 의원직 종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의사를 제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주영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법적 요소를 모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투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생

점화하는 동시에 한미 FTA 추가협상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제외한 민노당과 창조한국당 등의 여권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무안 출신 윤원일 의원은 이날 “환경운동가 출신으로서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사퇴 성명서에서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회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여당 의원들도 날치기를 막지 못한 만큼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격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선진화와 개헌으로 빚겨가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정면 대응할 경우 민주당의 페이스에 밀릴 우려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당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국회 밖으로 나가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장외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여권을 규탄하는 한편 의원직 종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의사를 제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주영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법적 요소를 모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투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생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바로 세우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진화할 수 없다”며 전날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국회 폭력상을 성토했던 뒤 “2011년을 앞두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근본 개혁과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미래 개헌·선거구제개혁 등의 정치 선진화와 국회 선진화 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오 특임장관도 이날 한반도 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금년 정치 일정은 사실상 끝났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G20을 유치한 나라의 국회가 낭만판으로 의사와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이 다랬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각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강력한 장외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5시간여 동안 마리톤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밤 9시부터 ‘서울광장 100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키로 했다고 전현희 대변인이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독재자와 MB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원 직총사퇴’를 거론했지만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원내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정권 탈환 등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민주당의 동력을 기우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